손학규 "연말까지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 올인하겠다"

'야권대통합' 급물살 탈까?

민주 통합정당안 발표…계파간 역학관계 논란 예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야권의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민주진보 통합정당'을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 및 정파 대표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야권통합특위'를 가동한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권의 대통합 논의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손 대표의 대표직 사퇴 여부, 전당대회 성격과 개최 시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차기 당권 등을 놓고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진보 세력의 대통합은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연말까지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진보 진영의 각 정당, 민주진보의 가치를 따르는 각 정파 및 노동, 시민사회 세력, 모든 민주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새로운 민주진보 통합신당에 참여해 달라"면서 '민주진보진영 대통합을 위한 정당정파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연석회의에서 야권 통합의 원칙과 범위, 추진 일정 등을 합의한 뒤 이달 안으로 통합정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문을 활짝 열고 헌신과 사즉생의 각오로 통합에 임할 것"이라며 "민주진보통합정당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일보전진에 운명을 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야권대통합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범야권의 통합 논의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당장, 우선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야권대통합 추진기구 '혁신과 통합(혁통)' 측에서는 "민주당의 구체적인 입장 제시가 실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통합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인데다 각종 난제가 산적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야권 통합에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데다 지도부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이를 반영하듯,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야권통합이 범민주개혁세력의 환골탈태를 회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당 지도부는 처절한 자기반성 없는 통합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당대회를 통해 총선을 준비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도부가 제시한 통합 로드맵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정면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 대표가 자신의 대표직 사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통합 정당 건설을 명분으로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느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진보정당은 "민주당은 연대의 대상일 뿐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권대통합은 진보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전당대회 성격 및 개최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야권 통합전당대회 등 야권통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식 권익위 부위원장 총선 출마 사의

영광 출신 '영원한 MB맨' 부산 출마 검토

전남 영광 출신으로 '영원한 MB맨'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도 김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당분간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차관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박재영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 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 측근 인사는 "부산 영도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이곳에 도전하기로 했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호남 출신이 영남에서 당선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결성, 선거 지원에 나섰으며 대선 승리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 민주평통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경남고와 부산 동의대를 나온 그는 부산 동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이 대학으로 특강을 왔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미FTA 저격수' 박주선의원

외통위 활동…ISD 문제점·번역오류 등 지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저격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한미 FTA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번역오류(207건)와 허술한 경제효과 비용추산 등을 찾아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한 뒤 이를 바로잡았다.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ISD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달 3일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에서 ISD에 대한 유보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한미 FTA의 투자규정은 미국의 법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그간 한국의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간접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 대법원 판례가 반영되도록 했다고 적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정 국문본 번역오류 시민검증 프로젝트를 실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국문본 번역 오류가 296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시민검증단은 2650건을 발견했다.

박 의원은 "미국 주·지방정부도 ISD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통상관료만 독소조항이 아니라며 재협상 불가론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재인 "야권 모두 통째로 들어와 대통합 이뤄야"

손대표 제안 적극 환영…거대 야당만이 정권교체 가능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민주진보통합정당' 건설 제안에 대해 '혁신과 통합'은 3일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혁신과통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이제 진보진영 정당들도 더 큰 하나가 되는 통합의 요구에 화답할 차례다. 작은 차이를 넘어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인 대통합에 함께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상임대표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발족식에 앞서 전주 최명희 문학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여러 정파가 한 집에 모두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당내 결의를 통해 통째로 들어오고 여기에 다른 야당과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3세력도 통째로 들어오고 해서 야권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지금처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점에서 대통합을 통해 거대 야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FTA 비준안' 대치 장기화

10일 직권상정說… 野 의원들 사흘째 점거농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비준안 처리는 최소한 1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흘 째 외통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이날 외통위 회의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ISD 폐기 문제를 놓고 대립각만 세웠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도 만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 대표들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결의를 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스타박스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월2200만원
-융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월 650만
-융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뒤 모아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 수익성상가 • 안전한재산증식
• 노후보장 •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산구 운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안집(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
토지매매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